

# “삼악산서 케이블카 타고 남이섬서 힐링해요”

## 춘천시, 춘천마임축제 개최...연말까지 주요 관광지 할인



1 삼악산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본 춘천시  
 2 춘천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새 단장. 케이블카 왼쪽이 새로 조성된 스카이워크  
 3 애니메이션 박물관 AR 동물원  
 4 지난해 춘천마임축제 의암공원 공연 모습

### 춘천시 관광지 연계 할인 ‘호응’

강원 춘천시가 추진한 7개 주요관광지 연계 할인 행사에 45일간 1천200명이 넘게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춘천시는 체류형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강아지숲, 강촌 레일파크, 국립춘천숲체원, 남이섬, 애니메이션박물관, 엘리시안 강촌,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계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관광지 중 두 곳을 연속 방문했을 때 입장권과 탑승권, 숙박권 등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아지숲 입장권, 강촌 레일 파크 탑승권, 남이섬 호텔정관루 숙박권,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 입장권에 대해 20%를 할인한다.

또 국립춘천숲체원 숙박권 30%, 엘리시안 강촌 콘도 숙박권 50%,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탑승권 20%(주말은 10%)를 깎아준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할인받은 이용객은 1천282명에 이른다. 특히 이 기간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를 이용한 298명 중에서 남이섬을 방문하고 온 관광객은 35%(105명)로 가장 많았다.

시는 여행 시즌인 지난 4월부터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참여 관광지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진행한다.

### 춘천마임축제 5월 22~29일 개최...도깨비난장 재개

춘천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마임 축제가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진다.

올해 마임 축제는 5월 22일 명동에서 락앤락(Rock & Rock)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린다.

또 5월 27~28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는 대표 프로그램 도깨비난장을 재개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 축제는 2020년에는 시내 일상 공간 100곳에서 열었고, 지난해에는 시즌제로 공연했으며, 올해는 축제 기간을 정해 진행한다.

축제 주제는 ‘황홀한 환대. 도시가 당신을 뜨겁게 환대한다’는 뜻이다. 시는 축제 기간에 유류 발전기와 발전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탄소 절감 운동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남이섬, 애니메이션박물관,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등 관광 명소와 도심 거리, 대학 캠퍼스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도 연다. 수준 높은 극장 공연은 물론 공지천 산책로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축제의 봄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축제 관계자는 “춘천마임축제를 통해 시대, 도시, 사회의 시민들이 느끼는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춘천으로!

호반의 힐링 공감 여행



힐·링·공·감  
스카이워크 호반